

수출 효자 '김'... 전체 7800만 달러 중 70% 차지

박람회 등 특화단지 육성 김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목포시가 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 김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는 1위 품목으로 2020년 6억달러 수출을 기록한 이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목포에서도 김산업은 주요 경제 동력임과 동시에 수출 효자상품으로 등극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지역 수출액 7800만달러 중 70%를 김이 차지하고 있으며 김은 수산물 수출액 94%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지난 3월 일본 수산청과 대사관, 영사관, 일본 전국김가공협회, 전국김도매협회 등 5개 단체가 대양산단 김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중국 베이징 제중도국제무역유한회사 관계자도 대양산단 김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화상으로 한-덴 해조류 교류협력간담회를 갖고 해조류 산업 현황과 김을 포함한 전남 해조류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덴마크 현지에서 전남 해조류 산업과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목포지역 수출액 7800만달러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김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전국 최초 마른김거래소(위)를 도입할 예정이다. 목포시 제공

다양한 김 관련제품을 전시했으며 현지 산·학·연 분야 관계자들에게 투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목포시는 일본 김관련 5개 단체 방문과 중국 무역회사 방문을 통해 대일·대중 수출 증가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김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

소 도입 △수산물 김 박람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화단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목포수산물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전국 최초 해수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김산업 특화에 탄력을 받고 있다.

마른김 거래소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국 최초 마른김 거래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목포시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걸음을 하고 있다.

마른김 거래소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지원을 받아 목포시가 추진 중인 수산물 수산물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1300㎡ 규모로 조성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고품질의 마른김을 수출전략형으로 육성해 목포의 김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농가 찾아 농촌일손돕기 목포시 10개동 자생조직



신안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자생조직들이 지난달 초부터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용당1동 통장협의회가 지도읍 농가를 찾아 양파 수확에 힘을 보탰다.

산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목원동 통장협의회는 팔금면 농가에서, 동명동 통장협의회는 압해읍 농가에서 마늘수확을 도왔다. 북항동 자생조직연합회는 장산면 농가에서 양파 수확을 돕고, 장산면 내 경로당을 방문해 식사를 대접했다.

목포시는 최근 10개동 300여명의 자생조직 회원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가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안반도 통합 분기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도농상생교류 운동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목포시-전남도

목포시와 전남도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행됐다.

6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목포시 일대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소매업체 등 1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와 합동으로 지난 2일 진행된 점검은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는 7월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될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개 품목)에 대한 지도와 홍보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목포=정기찬 기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목포시와 전남도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목포시 일대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소매업체 등 126곳을 대상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목포시 제공

세계금연의날 합동 캠페인

목포시는 제 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가 아닌 건강한 식량을 키워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목포이랜드복지관·목포역에서 피켓 홍보와 캠페인·건강홍보관을 운영했다. 한편 목포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지도·단속하고 대상자별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DJ서거 14주기 찾아가는 기념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관장 김두복)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념관은 관람객들이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타 지역 유관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이번 전시는 총 2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30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노력과 철학을 알리는 전시가 경기도 파주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열린다.

'다시, 6·15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6·15 남북정상회담 기록이 담긴 사진 34점을 전시된다. 9월과 10월 중 청남대(충북 청주시)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일상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두복 관장은 "DJ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사진전으로 알리고 일상전을 통해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구강보건의날 기념 인형극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목포시가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빨간모자와 충치극대' 어린이 충치예방 인형극을 개최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및 교사 1200명이 참석해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공연장 로비에 구강건강체험관을 운영해 치면세균막 테스트, 올바른 칫솔질 교육, 구강위생용품 체험, 포도주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후 참가자 전원에게 칫솔치약세트와 구강위생용품을 증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한국출판인회, 목포문학박람회 성공 협약

9월14~17일 갯바위·원도심 일원

목포시는 (사)한국출판인회의와 2023 목포문학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은 박홍률 목포시장, 이광호(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 유일 문학을 주제로 한 문학박람회가 오는 9월14~17일 목포시 갯바위 및 원도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는 목포문학박람회 성공개최와 독서와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2개 기관은 목포문학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상생 협력, 협력기관 회원사들의 문학박람회 프로그램 참여·협조, 독서 진



흥과 지역 출판사·서점 등 출판 생태계 지원, 기타 기관 간 교류 및 공동협력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사)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2-3일 목포에서 실행이사회 워크숍을 갖고 목포 문학과, 목포해상게이블, 근대역사거리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 보면서 목포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박홍률 목포 시장은 "전국 유일한 문학 박람회에 490개 회원사가 속해 있는 (사)한국출판인회의와 함께 할 수 있어 든든하다"며 "문학박람회를 통해 문학과 예술의 도시로서 목포의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문학단체, 다수의 문학인 및 시민의 의견을 담아 문학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문학관 일대에서는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청년 신진작가들과 함께 꿈꾸는 즐거운 문학 세계를 구현하는 청년·신진작가관, 문학 산업의 다양성을 보여줄 출판관, 웹툰관, 아동문학관, 독립서점관 등을 비롯해 문학 치유존 등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목포=정기찬 기자